

# 걸프전쟁후의 국제석유정세

이 글은 지난 5월 20일, 아랍·프레스·서비스(APS)社の 피에르·사마즈 편집국장이 日本 석유연맹 주최의 특별강연회에서 행한「걸프전쟁 후의 국제석유정세」를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피에르·사마즈

〈아랍 프레스 서비스誌 편집국장〉

〈편집자 註〉

## 1. 머리말

매년 나의 강연회에 참가하시는 분도 많은데, 먼저 86년 강연에서「日本の 잉여정제설비를 폐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일을 상기하고 싶다.

그 메시지가 당시에는 支持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설비확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현실적인 전망을 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는 당돌하게 들리던 생각도 수년후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적이 자주 있었다.

걸프전 위기는 현대생활에 좋은 교훈과 함께 석유시장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걸프전쟁 후 투자면에서는 석유산업이 바람직한 환경을 맞고 있다. 나는 회사일로 매년 같은 나라들을 방문, 2천명 이상의 산업계 리더들과 토의하는데 최근 11년동안에 지금처럼 좋은 투자기회는 없었다는 소감이다.

## 2. 국제석유정세와 석유관련 투자문제

### (1) 투자관련문제

석유산업의 투자환경을 개관한 다음 국제석유정세 및 주요산유국동향을 살펴보겠다.

현재 석유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루하루의 석유거래가 아니라 투자라는 장기적 문제이다. 1980~81년에 비교하여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투자의욕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금보유국은 조 금밖에 없으며, 또 금리도 낮아서 투자에 자금을 넣고 싶은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

정제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로 100~120억달러가 요청되고 있으나, 나의 평가로는 세계전체로도 불과 50억달러 정도일 뿐이다. 이는 정제설비에 한정된 얘기다. 잠재적인 투자가라는 점에서는 그 50억달러 구성이 한국·日本·태국에서 그리고 여타 아시아국에서 35억달러를 차지한다. 나머지 15억달러분은 세계의 기타국에서 나올듯하다. 그렇지만 그들 투자가 실현될지 여떨지는 대단히 의심스럽고 더욱이 이 계산에 쿠웨이트 정유 시설 재건문제는 빠져있다.

한편 자금부족에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지만 美國의 불황이 거의 끝나가는 추세여서 아마도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경에는 美國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설듯 하다.

상황비교로서, 1980~81년 당시에 도 역시 불황이였다. 그러나 자금은 충분하고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지금은 투자를 삼가하는 기운이 있다. 유일하게 투자가 가능한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인데, 실제로 35억달러 투자가 일어날지 의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4~5년만에 정제설비에 대해 그만한 투자가 되지 못하고 그 액수가 다소 작아질듯 하다. 특히 日本이 100

~150만 b/d의 잉여정제능력을 보유, 그 가동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설비확장에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유일하게도 韓國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에틸렌설비 확장실시가 실패(과잉)로 끝난 경험때문에 같은 과오를 두번 반복하지 않으려 들듯하다.

1994~96년은 충분한 시설투자가 모자라서 輕質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게 된다.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첫째로 소련의 원유생산이 침체된다는 점, 또 하나는 세계의 輕質原油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70~'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는 이상한 양상이 빚어질 듯 하다. 또한 세번째 이유는 경질제품수요가 증대된다는 것이며, 넷째로 90년대 후반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전망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정제설비를 고도화시키는 편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된다. 종래의 단순 정제설비를 보다 복잡한 현대적설비로 고도화함으로써, 重質油分을 분해하여 경질유분을 제조해 내기에 성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환경보전정책에도 알맞다.

다만 이 투자에 큰 위험이 있다면 경질제품가격과 대체에너지 개발기술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의 석유가격 상승때에는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신기술 개발에 4~6년이 걸렸다. 또 80년대 유가상승시에는 석유대체연료 생산기술 즉 천연가스에서 휘발유를 제조해내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4~5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94~'96년에 석유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대체연료개발 즉 LPG나 천연가스, 기타차원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기술개발에 아마 2년반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 대체연료제조기술과 油價상승과의 시간상 격차가 석유수급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해 설명해 보겠다.

## (2) 석유수급에 대한 대체연료개발의 영향

70년대 80년대의 유가와 대체연료개발의 경쟁을 둘러보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쪽이 진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로부터 알코올을 추출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석유가격이 낮아져서 쓸모가 없었다. 1980년대에 모빌사는 가스에서 정제유를 만드

는 기술을 뉴질랜드에서 개발했다. 그러나 실용기술이 준비될 단계까지 석유가격은 배럴당 15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이 기술은 유가가 30달러 이어야 채산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셸사가 천연가스 이용기술을 개발했으나 역시 유가하락으로 인해 실용화하지 못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90년대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석유가격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될 것 같다. 70~80년대에 개발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이 2년내지 2년반만에 또 개발되기 때문이다. '90년대의 석유가격은 다른 대체연료에 비해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이 다시 고도한 기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가스의 이용 및 합산소연료 사용에 MTBE를 도입하는 기술이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투자자도 은행도 정제설비 투자에 신중을 기할것이므로, 정제능력 확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는 기술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수송부문의 전기화(electrification), 석유대체연료개발등이 추진될 뿐만아니라 프로세스에 있어서 電氣化가 진척될 것이다. 소련에서는 현재 질이 낮은 석탄(갈탄)의 액화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있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실용화될 경우 소련의 액화대상인 갈탄의 매장량도 OPEC 전체의 탄화수소(석유) 매장량에 필적할만큼 크다. 소련은 이 액화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중시할 것이다.

90년대 10년간의 신기술개발은 석유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95~'96년에 석유수요는 6,700만 b/d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경제순조로 유가가 낮게 흐를 경우 7,500만 b/d까지 커질 수 있다. 1980년 기준 달러가치로 당시의 석유가격은 현재가치의 1/2이하라 한다. 즉 현재 배럴당 25달러라는 가치는 '79~80년의 가치로 12.5달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경질제품가격이 90년대 후반에 높아진다는 뜻은 이러한 절대가치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原油와의 상대가격에서 높아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重質原油와 輕質原油의 가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API 37도 이상의 원유와 API 30도 이하의 원유의 가격차가 90년대 후반에 배럴당 5달러 이상 벌어진다는 얘기이다.

앞에서 세계석유수요가 95~96년에 6,700만 b/d에

이른다고 지적했는데 그 수요의 60%는 경질원유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경질원유가 부족하게 된다. 현재의 경질원유 생산수준은 소요량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90년대 후반에 있어서도 경질원유 공급이 소요량을 하회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경질원유값이 상승할 것도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패턴을 중질원유에서 경질원유 쪽으로 변경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체생산량을 확대하는 투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대규모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사우디의 원유생산 패턴을 바꾸기 위한 투자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소요자금 확보가 현재정세로는 쉽지 않다. 그런 시각에서 사우디가 수년내에 정책변경을 할지도 모른다.

즉 금융시장에서 빌리는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과의 제휴를 구할수도 있다. 사우디의 원유매장규모로서는 생산원유의 60%를 경질원유로 하는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3년전 발견된 리야드남쪽 경질유전을 급히 개발해야 한다. 현재 사우디 원유생산능력 확대계획을 보면 '90년대 후반 1,200만 b/d를 목표하고 있으며 달성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규모는 사우디로서도 거액이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란도 비슷한 노선을 생각하고있다. 라프산자니大統領이 프랑스를 방문, 석유협회에 대해 이란의 輕質化를 위한 신기술 제공을 요구했다. 이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므로 독일 이외에 그만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독일은 지금 동서독 통일상의 문제가 바빠서 그런 협력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파이프라인 배치실태를 생각하면 독일 이외의 나라가 이란의 석유·가스부문에 투자할 수는 없는 듯 하다. 사우디와 이란 이외에 생산원유의 輕質化를 기획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경질원유의 공급국들은 잇따라 자원고갈에 처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은 정제능력 부족 때문에 생산되는 경질원유를 자국에서 소비하게 된다.

한편 질 좋은 北海유전의 원유생산도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외의 산유국에서도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세계석유수요는 증대하는데 현재능력

으로 볼때 4,000만 b/d의 경질원유생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90년대에는 가스의 역할이 커져서 석유역할의 몫을 잠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단순히 천연가스만이 아니라 MTBE등 합산소연료의 生産基材(원료) 및 LNG나 LPG를 사용하는 發電部門도 포함한다.

90년대 후반에 경질원유 수요가 4,000만 b/d에 달해 경질제품가격이 높아질 경우, 2년반내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신기술)가 세계각지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며 MTBE에 관해서는 알제리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플랜트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소련의 원유생산 침체는 비관론자가 예측한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東京에 강연하러 오기 전에 소련에 들렀다. 그곳에서 수집한 정보로는 현재 원유생산량이 1,020만 b/d로서 1995년에 900만 b/d로 낮아진다. 이는 세계 원유공급상황에 큰 왜곡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90년대 후반에 중질원유는 공급과잉인데 경질원유는 심각한 공급부족이 된다. 이 점에서 경질원유와 중질원유의 가격차가 배럴당 5달러 이상 크게 벌어질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전망은 상류부문에 내지 하류부문에의 투자가들이 어떤 원유를 개발할까, 어떤 정유설비를 고도화시킬까 등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가스활용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90년대 양상이 70~80년대와는 크게 다르다. 걸프위기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可視化한 셈으로 좋은 경고를 준 것이다. 금융부문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약세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90년대는 자본이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금융부문의 재편성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러한 금융재편성은 석유산업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계석유산업에 영향이 큰 中東과 소련의 상황을 살펴보자.

### 3. 주요산유국의 상황

#### (1) 쿠웨이트

쿠웨이트 영토의 탈환은 걸프사태의 해결로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내년이나 내년이후에 새로운 문제발생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쿠웨이트의 국왕은 사태초기 사우디로 망명했는데 두가지의 상반된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美國 대통령에게 쿠웨이트 탈환후에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하는 한편, 사우디국왕에게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단순하게 보자면 만일 쿠웨이트가 내년에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내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어느쪽이라도 쿠웨이트가 1994년 이전에 주요 석유수출국으로 재생되지는 못할 것이다.

1994년에 들어서도 쿠웨이트의 원유수출량은 200만 b/d를 넘지 못할것으로 분석된다. 얼마만큼 빨리 석유수출국으로 재등장하는가는 유전화제를 진화하기에 달려있으나 아직도 진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의 왕정체제가 어찌되는가 하는점은 ①쿠웨이트가 어찌되는가 ②아랍과 이스라엘간의 평화교섭이 어찌되는가 ③이라크가 어찌되는가 등에 달려있다. 이들 3요소는 사우디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사우디의 왕족내에는 진보파(파아드국왕과 6인의 형제)와 보수파(압둘라 황태자중심)와의 대립이 보인다. 어느 쪽이 걸프사태에서 세력신장을 했는가하면 진보파라고 한다. 앞으로 진보파는 사우디의 지배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 권력투쟁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부문에서 특히 크고 SAMAREC을 포함한 국영기업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진보파는 비즈니스 성향이 강해서, 현재 관련기관들의 운영방침을 변경하려 생각한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 70년대의 관행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다.

사우디 사업가의 대부분은 승전무드도 있어서 이제 돈 벌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美國대통령이 말한 신세계질서와 전혀 다른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사우디의 사업가들은 걸프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운것이 없었다는 얘기다.

걸프전쟁 전에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이 인접국에 위협을 가할때, 사람들은 페르샤만을 지배하는 영도자들이 권력을 서로 나누는 정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

다. 그러나 美國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자 지도자층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自信을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 (3) 이란

걸프전쟁후 이란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현실적이며 비즈니스지향적으로 되었다. 라프산자니大統領은 유능한 사업가로서 투자유치에 열을리고 있다. 유치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韓國등이다. 내년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양국왕래를 회복하게 된다. 이란은 매우 매력적일만큼 안전하며 민주적상황이 되고 있다. 과격파와 급진파는 조용하도록 조절받고 있다.

## (4)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하나인 아부다비는 북쪽의 페르샤만안 여러 나라들 보다 좋은 상황이다. 경질원유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배층과 사업가들과의 관계도 현실적이어서 유연성이 많다.

## (5) 오만/카타르

오만은 단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요인을 안고 있다. 술탄(왕)의 후계자가 없어서 만일 그가 사망하게 되면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 (6) 이라크

적어도 당분간은 사담후세인의 체제가 존속할 것이다. 그 존속여부는 터어키大統領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터어키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터어키의 오자르大統領은 산업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계는 그에 대해 불만이다. 터어키산업계는 걸프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의 시장과 거액의 자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터어키에게 25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터어키는 내년 이 대통령선거의 해다.

이런 사정이므로 만일 터어키가 자국을 지나는 이라크의 석유파이프라인을 열어주면 이라크는 터어키에 대한 25억달러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지 20만 b/d의 원유에 상당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가 해제되면 이라크가 원유 100만 b/d를 수출할 수 있다. 그중 절반을 국내수요에 충당시키면 후세인체제가 충분히 존속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라크국민의 생활은 100년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사담후세

인이 수년내에 권좌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라크의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장차 페르시아만지역에서의 日本역할을 생각해보면 이라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듯 하다. 포스트·사담후세인의 90년대 후반은, 이라크에서 日本이 100만 b/d의 원유를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90년대 후반에 이라크는 자기네 자원을 외국파트너와 나누지 않을 수 없다. 그 파트너 대상은 프랑스와 日本이 유력하다. 이라크는 그들에게 이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

이라크에서 日本이 건설한 시설은 日本회사가 재건해야하며 프랑스가 건설하던 시설은 프랑스가 재건해야 할 것이므로 프랑스와 日本으로서는 이라크가 큰 시장이 된다. 이라크 시장은 이미 그러한 사정에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에 다른 산유국의 원유생산이 저하되므로 이라크는 日本에게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국제사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옵션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세계는 CNN의 보도등에 의해 이라크의 현상을 알고 있으므로 이라크는 현실로부터 은폐될 수 없다. 문제는 어느나라가 이라크를 돕는가 또는 어느나라가 신용을 제공하는가이다.

슈와르츠코프장군은 모든것을 파괴하지 않았지만 정제설비, 석유화학, 비료플랜트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4~5년간 낮은 가동율이 계속된다면 전체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이유로 이라크는 막대한 석유매장량을 담보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 파트너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日本은 이라크로서도 중요한 나라의 하나이다.

### (7) 소련

소련에 대해 말하자면 경제면에서 공화국지향부문과 연방지향의 부문이 있다. 석유에 관해서는 연방지향이 대단히 전통적인 부문이다. 관료구조라든지 멘 파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석유산업은 국가구조가 변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들면 유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굴장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엔지니어들이 리투아니아나 그루지아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지질학

자가 생산공화국 이외의 출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석유부문을 재편하는 것 자체가 이 부문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유전에 유능한 인재와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는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석유사업은 재편성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양측 제국이 석유부문 재편을 원조하기에 가능한지 모르지만 소요인력을 고려하면 석유부문은 매우 특수해서 혁명시대부터의 모든 계속성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므로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문의 근로자는 노동의욕이 낮고 또 관할관청이 많아서 효율성이 낮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복한 우크라이나공화국이라도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스부문은 비교적 근대적이다. 그것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연방레벨에 통합된 부문이지만 재편은 가능하다. 다만 연방레벨로서 공화국마다 분할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 다른 에너지부문에 관해서는 재편하는 것과 공화국단위의 현지화가 가능하다.

석탄부문은 연방정부가 각공화국별로 독자적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생산, 소비, 활동, 합병에도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문에서는 권력의 분산화 및 현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면에서는 각공화국으로의 분산화 및 현지화가 될 경우 원자력은 현재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할 것이다. 확대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각공화국 수준에서는 그만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석유소비는 각공화국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각공화국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석유소비에 관한 자유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공화국의 자주성은 공화국끼리의 협조·조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잘 돼나간다면 공급은 연방레벨에서 소비는 공화국레벨 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소련은 석유에 관해 공동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공화국간에 루블貨로 석유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화국들이 협조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앞으로 수년간 러시아공화국은 달러확보를 위해 석유를 다른 나라에 팔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몇개의 공화국에서 석유소비가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의 석유생산이 감소한다 해도 현재보다 많은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면도 있다.

#### 4. 질의·응답

**코멘트:** 매우 신선한 견해로서 특히 中東지역 얘기가 그렇다. 쇼크받았다. 점차 중동지역이 안정되므로 오히려 그 속에 불안요소가 증대되고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 불안정요소란 우리가 생각하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귀중한 정보에 감사한다.

**응답:** 나라가 성숙하는데는 왕도가 없는 것이며 작년 까지 중동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하나의 전쟁 내지 하이테크戰에 의해 성숙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통해 달성된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보다 성숙한 인물이 권력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사적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전쟁과 전후를 통해 후세인대통령을 없애버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것 처럼 선전되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질문:** 사우디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왕제의 계승권은 어찌될것 같은가.

**응답:** 파아드왕이 사망하면 압둘라황태자가 계승한다는 것이 헌법적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리 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의외로 생각할 것이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므로 압둘라가 국왕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한다. 만일 압둘라가 국왕에 취임하면 진보파의 존재 때문에 통치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통치를 제대로 하려면 진보파(일곱왕자중심)를 배제해야만 가능할텐데 그것은 쿠데타가 될 것이므로 어려운 일이다.

**질문:**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관해서는 걸프전쟁이 이번에 해결을 멀게한듯하다. 이라크가 무참히 패전하는 바람에 아랍측 결속이 무산된 듯 하다. 앞으로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는가.

**응답:**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즉 양측간의 전쟁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걸프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6년정도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에 美國 부시大統領이 재선

되면 그후 4년간을 평화추구 프로그램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아랍제국중 앞으로 6년이내에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갖춘 나라는 없다.

그리고 무엇인가 평화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묘사할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 주로 1966년에 선출되는 美國대통령의 정책에 달렸는데 여하튼간에 전쟁발발조건은 남아 있는 것이다.

**질문:** 사우디의 석유상류부문 투자에 외국파트너를 구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사우디 석유개발에서 메이저의 역할이 커질 것인가.

**응답:** 메이저의 역할은 틀림없이 더 커진다. 지금도 이미 커지고 있다. 다만 여기저기 다른 분야에서 진행중이다.

美國의 스타·엔터프라이즈社에 있어서 사우디와 텍사코의 협력이 개개의 레벨로 역할증대될 것 같으며, 관계 메이저 4개사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협력할 것이다. 모빌社는 홍해에서 석유탐사에 협력을 하고, 셰브론社는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하는 것에 협력한다. 셰브론과 텍사코는 아주 重質인 원유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빌社와 엑슨社는 경질원유 즉 모빌은 베리原油를 엑슨은 가와르유전의 원유를 취급할 수 있다. 또 메이저 4개사 이외의 어느회사가 파트너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다. 사우디는 종전에 스스로 자금조달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되어있다. 벌써 전쟁비용으로 500억달러나 썼기때문이며 여기에 더하여 금년말까지 200억달러를 전후처리에 써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화준비액이 감소되고 있으며 현재 180억달러 뿐이라고 전해진다. 또 美國에 갖고있는 재무부증권은 손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90년대의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대 80년대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향락속에 범죄오고  
근면속에 번영온다**